



분당 카페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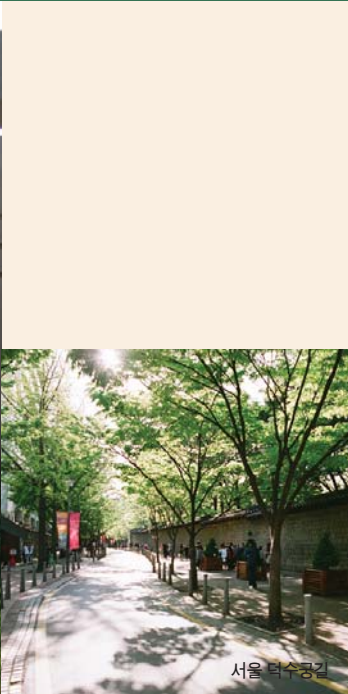
강릉 소나무명품길

Landscape Review

조경정보 vol.05



광주 푸른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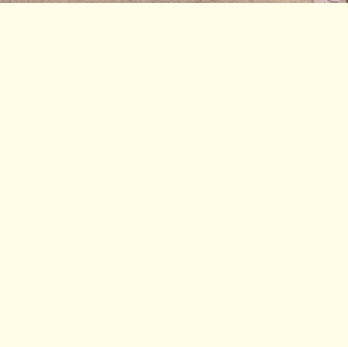
서울 덕수궁길



경기 동탄신도시



서초 삼성타운



부산 광복로



대구 중앙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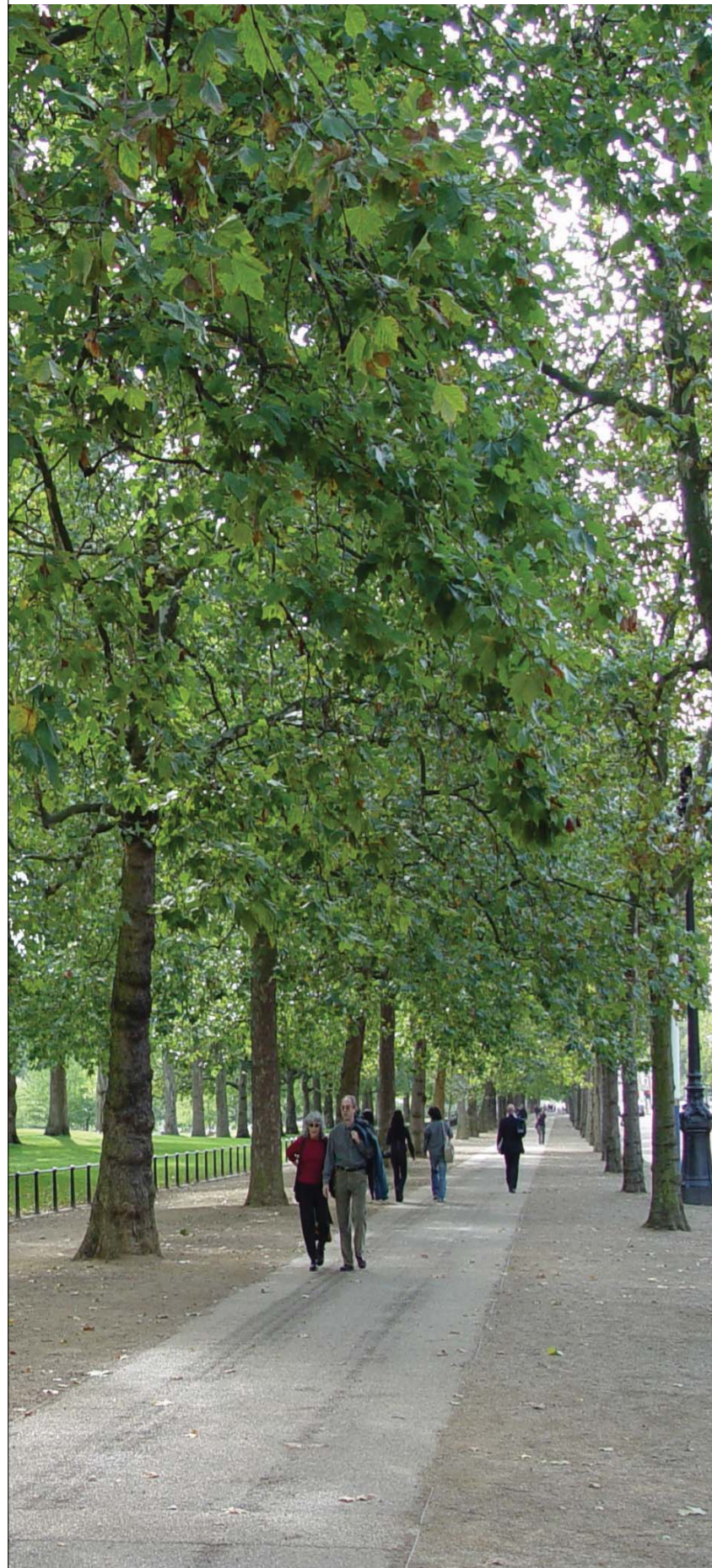
서울 테헤란로



청주 플라타너스길

Contents 가로경관과 조경

- 02 보행자 중심의 가로만들기
- 04 매력적인 도시를 만드는 가로경관
- 06 명품 가로의 설계
- 07 Issues & News



보행자 중심의 가로 만들기

임 승 빈 Im, Seung-Bin · 서울대학교 조경 · 지역시스템공학부 교수

도시가로의 진화 / 복개하천의 화려한 부활

도시가로는 보행이 주가 되었던 도시발생 초기로부터 진화를 거듭하여 차량 중심의 가로를 거쳐 다시 보행중심이 되고 있다. 원래 사람이 거닐던 가로는 산업혁명 이후 동력을 이용한 수송수단의 발달로 그 자리를 자동차에게 내주었으며 최근에는 다시 사람(보행자)이 주인이 되는 가로를 지향하고 있다. 원활한 차량통행을 목적으로 운영되던 도시가로는 차량 흐름에 다소 지장을 주더라도 쾌적한 보행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에는 차선을 줄이고 보도를 확장하는 사례를 종종 볼 수 있다. 또한 과거에 복개되어 차도 혹은 주차장으로 이용되던 하천이 복원되어 보행자를 위한 친환경 가로공간 및 휴게공간으로 부활하고 있는데 서울의 청계천, 과천의 양재천 등이 대표적 사례라 하겠다.

가로수의 존중 / 가로의 생태적 가치 증진

최근 공공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간판을 비롯한 가로등, 가드레일 등 각종 가로시설물의 질이 높아지고 있음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러나 보행자에게 그늘을 주고 도시열섬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가로수는 상대적으로 과소평가되고 있다.

디자인서울거리조성사업을 분석한 한 연구에 의하면 보행자들의 가로수에 대한 만족도가 다른 요소(공공시설, 간판, 가판대 등)의 만족도에 비하여 제일 낮았으며, 반면에 보행자들이 느끼는 중요성은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과도한 시설물 중심의 사업은 지양해야함을 말해주고 있다.

광화문광장에서도 유사한 논란이 있다. 광화문광장의 조성은 대부분 시민이 긍정적으로 보고있으나 보호수급의 은행나무를 뽑아버리고 삭막한 돌바닥을 만들어버린 것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늘 부족으로 설치한 국적 불명의 벤치는 어색하기만하다. 북악산으로의 조망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광장 남쪽에는 그늘을 조성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본다.

가로변 대형건물 앞 광장의 경우도 건물주나 건축가의 입장에서 건물에 어디서나 두드러지게 보이게 하고 싶기 때문에 수목을 심지 않거나 최소한으로 제한하려한다. 그러나 보행자의 입장에서 그늘과 쾌적한 보행환경이 필요하지 특정 건물이 두드러지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전 지구적 문제인 지구온난화 극복과 친환경적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충분한 양의 식물도입이 필수적이다.

빼기디자인 / 가로경관 개선의 지름길

우리나라 도시가로 경관의 근본적 문제는 제각각의 형태 및 재료로 이루어진

각종 간판, 시설물, 건축물 등이 무질서하게 어우러져 과도한 복잡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가로경관 개선의 최대 목표는 형태, 색채, 재료의 단순화가 되어야 한다.

서울시가 “빼기 디자인”을 강조하고 있음은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단순화를 바탕으로 약간의 액센트를 준다면 품위있고 개성있는 가로경관이 형성될 것이다.

건물 1층의 개방성 및 접근성 증대 / 가로활성화

아무리 쾌적한 가로환경을 만든다 해도 통행자가 없다면 의미가 없다. 야간에도 활성화된 가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폐쇄적 입면보다는 가로변 건물 1층에 가로로 열려있는 상점, 식당 등을 유치하여 활발한 보행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가로변 아파트단지의 경우 외부와 격리된 단지내 근린상가보다는 가로를 따라 노선상가를 배치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와 더불어 담장허물기를 통하여 가로공원 등을 조성함으로써 경관도 향상시키고 보행자의 편의성도 높일 수 있다.

통경축 확보 / 가로에서의 원거리 조망 확보

가로는 건물에 의하여 외부로의 시선이 차단되어 답답하고 위압적인 느낌을 주기 쉽다. 우리나라경관의 고유한 특성중의 하나는 구릉지가 도처에 펼쳐져있는 것인데 가로에서는 주변구릉지 경관을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일정 거리마다 수려한 주변 구릉지로의 시선을 열어주는 통경축을 설정하거나 조망가로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보행육교 철거 · 횡단보도 설치 / 보행우선권 확립

지금까지는 차량우선의 도로구조로 되어있는데 이를 보행우선으로 바꾸어야 한다. 보행육교는 자동차가 평지로 편하게 지나가고 보행자가 이를 피하여 계단을 오르내리며 힘들게 건너도록 하는 대표적인 차량우선의 사례이다. 보행우선이기 위해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로 건너거나 차량이 지하차도로 건너야 마땅하다. 구미 선진국의 도시가로에서는 보행육교를 보기 힘들다. 과천시에서는 제작년 육교를 철거함으로써 전국에서 육교를 퇴출시킨 최초의 도시가 되었는데 이는 진보적인 과천시의 행정성과라 할 수 있다. 서울시에서도 수년전부터 횡단보도를 늘려가고 있는데 이는 보행우선권 확립을 위해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또한 도로에서 주차장, 골목 등으로 진입할 때 보도를 끊고 차도를 연결하는데, 이 경우 보도가 같은 높이로 연결되고 차량이 이를 넘어가도록 하는 것이 보행우선 원칙에 맞는다. 이는 휠체어, 유모차 등이 편하게 다닐 수 있는 무장애(barrier free)가로조성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다양한 정보제공 / ubiquitous 환경조성

현대는 정보사회라고도 한다. 가로가 단순히 통행공간만을 제공하는 시대는 지나갔다. 보행자는 가로에서 버스, 전철, 택시 등에 관한 교통이용정보, 날씨, 대기질, 뉴스, 행사, 광고 등의 다양한 정보에 접하게 된다. 이러한 전광판, 현수막 등에 의한 무차별적 정보의 난립을 정비하고 필요한 정보만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수단 및 방법을 체계화,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정보가 도심 등 특정지역에만 편중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으며 도시 전체에 보행자를 위한 균형된 정보밀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21세기의 도시가로는 보행자 중심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있다. 이는 도시재생 및 경관주의의 대두와 무관하지 않다. 가로는 이제 도시인의 통행로이면서 생활의 장이 되고 있다. 최근들어 우리나라에서도 도시가로의 탈바꿈이 시작되고 있다. 우리나라 도시들이 보행자 친국의 도시를 이룩하여 도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거듭나기를 기대해본다. seungbin@snu.ac.kr



매력적인 도시를 만드는 가로경관

가로는 미적·기능적 역할을 감당하는 도시의 혈관이고 얼굴이다. 도시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사람들을 소통하게 하며, 지역과 지역을 연결해준다. 또한 그 도시의 경관적 이미지를 나타내고 정체성을 잃게 하는 중요한 장소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는 공공디자인 대상으로 가로를 선택하고 가로의 물리적 환경 - 바닥포장, 가로시설물, 간판, 가로수 등 - 을 재조성하고 꾸며 나간다. 아름답고 특색있는 가로환경은 공간을 잇는 맥을 형성하며 도시경관을 배가시킬 것이다.



서울 인사동길
다국적 이용자가 찾고 있는 근대골목의 대표적 가로인 인사동길은 역사성을 고려하여 전통적 모티브를 활용한 시설물과 포장재료, 패턴의 디자인이 돋보이는 길이다. 전통적 상업시설과 문화가 어우러진 도심 명소 가로로 이용되고 있다.



서울 덕수궁길
서울 시내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로로써 유명한 산책길 중의 하나이다. 보차공존도로로 조성된 덕수궁길은 덕수궁 돌담과 은행나무 및 느티나무 가로수가 잘 어우러져 아름다운 단풍길로도 유명하다.



대구 동성로, 중앙로
동성로는 상업중심 보행가로로써 휴게광장과 목백합가로수, 조명이 어우러져 새로운 가로문화를 꽃피웠으며, 중앙로는 대중교통지구로 지정된 공차량전용가로로 지하철역에서 발생하는 지하수를 전 구간에 활용한 디자인을 도입하고 문화예술공간과 접목시켜 이색적인 가로경관을 연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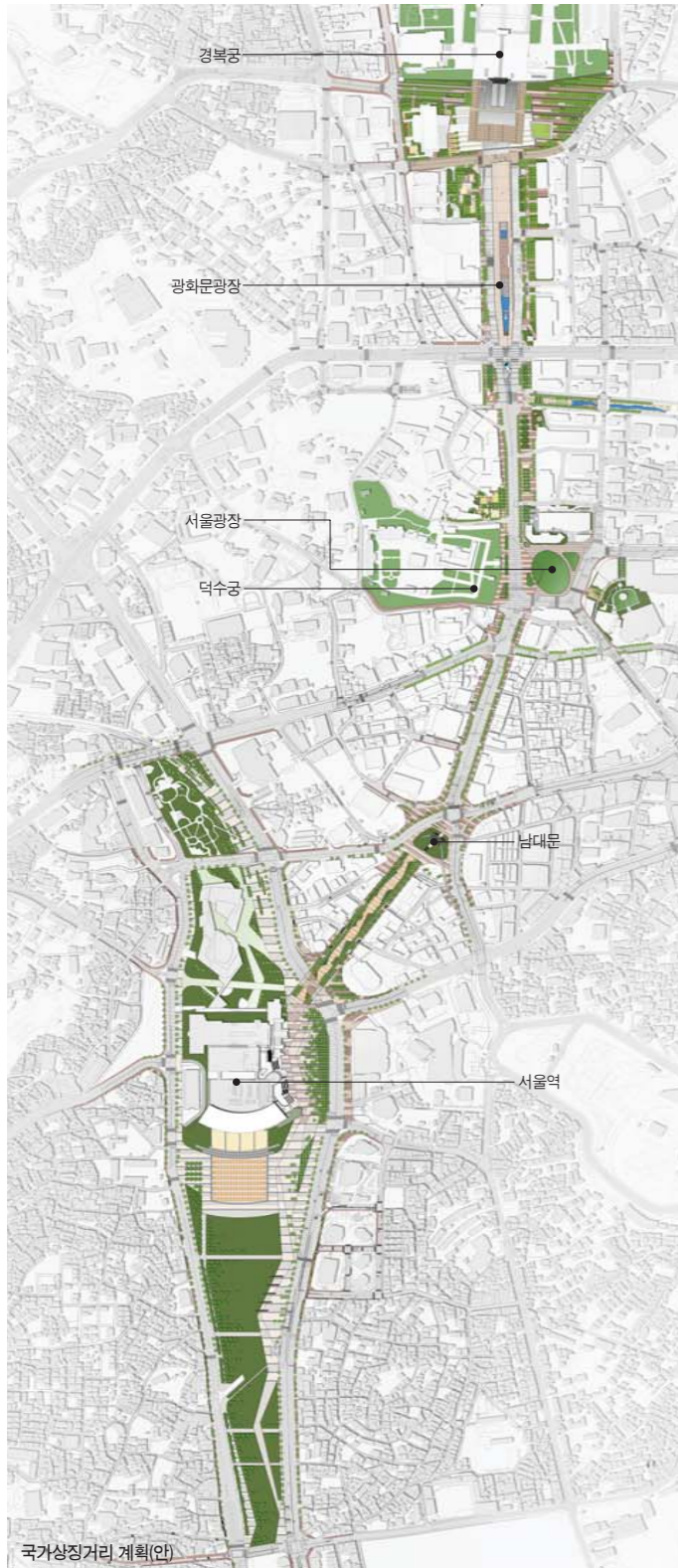
- | | |
|---|---|
| 1 | 2 |
| 3 | 4 |

- 1 오스트리아
- 2 미국 텍사스
- 3 일본 삿포로
- 4 독일 베를린



명품 가로의 설계

진양교 Chin, Yang Gyo · (주)CA조경기술사사무소 대표



가로의 속성과 연원. 길 또는 가로는 사람 또는 물건을 운반하는 기구(機具)의 통행을 위해 조성된 공간을 지칭한다. 통행을 위해 만들어진 공간이다 보니 사람과 사람사이를 연결하게 되고 그래서 가로는 원래 사람들을 모으는 역할을 했다. 가로는 사람들이 오고 가는 장소였던 동시에 사람들이 만나고 대화하며 소식을 나누던 장소였다. 가로는 광장이 보편화되었던 나라에서는 광장의 부수적 공간에 불과했지만 광장이 보편화되어있지 않은 나라에서는 광장의 대치공간이었다. 왕정중심의 동양에선 그리스의 아고라나 로마의 포럼과 같은 시민광장은 가능하지 않았을테고, 세상사와 거리를 두고자 한 불교중심의 종교생활은 유럽의 중세처럼 공동체적 집합광장을 요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도 시장서기와 같은 일상적 공공활동은 대신에 가로에서 충분히 수용되었다.

공공공간으로서 사람들을 모으던 우리의 옛 전통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에 점유된 현대의 가로는 옛날 가로와는 이제 크게 다르다. 자동차에 자리를 내어주기 이전의 옛날 가로의 속성을 되찾고자 하는 노력이 시작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유럽은 80년대에 들어오면서 그리고 구미와 일본은 90년대에 그리고 우리는 2000년대 초부터 '걷고 싶은 거리 만들기' 또는 '디자인특화거리 조성사업' 등 다양한 이름으로 가로의 원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민간과 공공의 합작영역의 가로. 가로의 설계는 다른 공공공간, 즉 공원이나 광장 등의 설계보다 훨씬 어렵다. 가로(街路)라는 것이 민간필자의 경계사이에서 차도와 보도로 구성된 순수 공공부분의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인접 민간부분의 건물용도나 쓰임새와 매우 긴밀히 상호 교호하는 영역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로설계의 성공은 가로연변 민간부분의 적극적인 협조에서만 가능하다. 예를 들면, 적절한 넓이의 차도폭(양쪽 가로면 보도와 건물들의 시각적 교류 때문에 6차선보다 넓지 않아야 좋다는 게 일반적 견해)과 충분한 폭원의 보도폭(보도폭은 넓을수록 좋지만 최소 4미터 최대 12미터 정도가 좋다는 게 또 일반적 견해)다, 그리고 가로의 성격에 맞는 벤치, 사인시스템, 버스쉘터, 가로수, 보도포장 등은 명품가로를 만드는 필수요소들이다.

하지만 진정한 가로설계의 성패는 사실상 보도에 면해있는 건물의 1층 용도에 더 크게 좌우된다. 1960년대 초 우리가 현재 지구단위계획으로 부르는 미국의 도시설계나 독일의 지구상세계획 등은 공공의 관점에서 도시의 집합경관을 입체적 지침을 가지고 좋은 쪽으로 유도하는 목적 외에도 도심가로를 활성화하고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가로에 면해있는 1층 건물의 용도를 규제하고 유도하는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티파니 보석점이 있는 뉴욕 5번가나 소극장이 열을 지어있던 브로드웨이의 도시설계는 고층업무용 빌딩군의 재개발 압력 속에서 서도 재개발되는 건물의 1층만은 소극장이나 보석점이나 옷가게 또는 카페 같은 보행친화형 용도로 유도함으로써 거리의 옛 명성을 유지하고 뉴욕시의 브랜드이미지를 지속시키는 데 일조했을 뿐 아니라 이후 세계 모든 도시의 도시설계의 효시가 됐다.

국가상징거리.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상징거리 조성사업은 가로의 상징적 중요성-가도가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이상으로 국가의 브랜드 이미지까지도 제고할 가능성이 있다는 을 시사해준다. 언론에 발표된 대로 정부는 경복궁이 있는 광화문으로부터 짧게는 서울역까지 길게는 용산 국제업무지구까지 한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상징하는 동시에 한국을 대표하는 가로를 만드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국가상징거리조성 사업의 내용을 대략 들여다보면, 단순히 차도의 폭을 줄여 보도를 넓히고 자전거도로를 도입하는 도로단면 구조의 개선이나 가로수, 사인시설물, 조명등, 벤치, 가로수 등의 가로시설물을 바꾸는 작업에 국한되지 않는다. 세종로와 한강로에 면해있는 블록들의 총체적인 관리와 유도-건물의 형태, 마감재료, 창문의 형태와 크기 그리고 재료, 건물 1층의 용도, 건축선 후퇴 또는 지정, 건물 캐노피와 캔틸레버의 위치와 돌출길이, 공개공지 또는 공공공지의 위치와 크기 등을 포함한-가 병행되고 있다. 뿐 아니라 남북방향의 국가상징거리와 교차하는 주요 동서가로 일부의 개선도 함께 고려되고 있다. 남대문에서 서울역까지의 구간은 아예 차도폭의 축소에 국한되지 않고 차도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전면 교통체계의 개선도 포함하고 있다.

맺자면, 명품가로의 설계는 쉽지 않다. 가로와 관련된 모든 분야, 즉, 도시계획, 토목, 조경, 건축, 교통 등 그것이 민간부분이던 공공부분이던 종합적이고 긴밀한 협력체계 속에서 가능하다. 멋진 가로수 하나만으로 또는 멋진 가로등 하나만으로 사람들을 끌어 모으고 사람들 입에 회자되는 명품가로에 대한 기대는 버려야 한다.

ca@cadesign.co.kr

Issues & news

201001 Landscape Review

조경문화·녹색문화 리포트 www.lafent.com



경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밝은 신년의 햇살이 온 누리를 밝게 비추고, 우리 모두의 마음이 새로운 희망으로 점철됩니다. 2010 새해를 맞아 조경정보지 '랜드스케이프 리뷰' 독자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깃들길 삼가 축원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국민소득 2만2천 달러, 교역 규모가 세계 9위의 국가로 성장하였습니다. 이것은 실로 우리 민족 5천년 역사에서 상전벽해의 신화를 이룬 것입니다. 우린 참혹했던 후진국에서 개발도상국을 넘어 이제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서 더 한층 경쟁력 갖춘 국가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젠 조경(造景: Landscape Architecture)을 통해 우리의 국토·도시문화도 선진국에 도달할 수 있도록 품격을 향상시켜야 할 때가 왔습니다. 21세기 지식정보산업사회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상이 물려준 금수강산 우리의 국토와 도시의 보전·복원의 차원을 넘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경관과 생태환경과 문화를 통합적으로 계획·설계,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경은 이러한 경관·생태환경의 통합적 이론과 실천을 통해 국토·도시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전문분야로서 그 역할과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하겠습니다. 올해도 '랜드스케이프 리뷰'는 이러한 조경 고유의 계획, 설계, 관리 이론과 실천에 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조경 및 건축, 도시계획 등 조경관련 행정 일선과 교감함으로써 대한민국 선진국도·도시 창조에 기여하는 정보매체로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세계적 화두가 되고 있는 녹색성장도 바로 이와 같은 국토·도시조경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입니다. 조경정보지 '랜드스케이프 리뷰'를 접하는 모든 분들에게 새해에는 조경을 통해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함께 나눌 수 있길 기원하며, 성공적인 경인년이 되시길 삼가 축원 드립니다. _ 2010 경인년 새해 아침 (사)한국조경학회장 조 세 환

광나룻길, 푸른 숲길로 재조성

서울시 광진구청은 지난 12월 30일 어린이회관 정문 앞에서 '광나룻길' 설계한 그린웨이 조성사업을 위한 기공식을 갖고 내년 5월 원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공사가 완료되면 어린이대공원역에서 어린이회관 정문까지 320m, 어린이대공원 남문에서 구의문 주차장까지 210m 등 총 연장 530m 구간에 폭 0.8-3.0m 규모의 실개천이 불부터 가을까지 항상 흐르게 된다. 또 광나룻길에 설치하는 맨홀, 자전거 보관대, 버스승강장 등 공공시설물에 대해 서울시 표준디자인안을 적용해 도심경관 향상과 통일성을 줄 계획이다.

'다산문화의 거리' 조성

경기도 남양주시 외부에 팔당2리부터 조안C까지의 다산로가 실학의 본고장이자 지역의 명물인 '다산문화의 거리'로 새롭게 탈바꿈됐다. 다산문화의 거리는 총 11km로, 진입부에 '다산문화의 거리'를 일리는 안내조형물과 포인트 풀이 설치되었고, 그리고 폐철도가 된 오래된 철교는 기중기를 이용한 다산의 위대한 업적인 수원화성을 옮겨놓은 듯한 성문과 성곽으로 개선하고, 기존의 노란색 방호벽을 전통성곽처럼 개선했다.

서울시, 걷기편한거리 만들기 사업

2010년에는 서울 종로 일대 대로변의 노점상이 모두 사라진다. 서울시는 종로에 있던 노점상들을 주변 특화거리로 옮기는 '종로대로 노점 비우기 사업'을 2009년 12월까지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종로구와 함께 2008년 하반기부터 '걷기 편한 종로거리 만들기' 사업을 추진해 수십년간 종로 대로변에서 영업을 하던 647개 노점상을 대상으로 설득작업을 벌이고 주변 이면도로 등지에 특화거리를 조성해 왔다. 서울시와 종로구는 종로2가 이면도로에 '젊음의거리' (길이 150m), 공평동에 '화신떡거리' (40m), 관수동에 '빛의거리' (180m), 원남동에 '만물거리' (232m)를 조성해 현재까지 종로의 노점 341개를 옮겼다. 나머지 노점 306개는 2009년까지만 영업하고 2010년 1월까지 조성되는 낙원동 '다문화거리' (390m), 종로5·6가의 '화혜·목욕거리' (231m)와 대학천남길 (50m)로 옮길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와 종로구, 종로노점상연합회는 노점 영업 때 법질서를 준수하고 상호 우호관계를 유지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HOT Issues & News

이달의 뉴스 검색 키워드

- ▶▶▶ 산림청, 가로수수형관리 매뉴얼 발간 보고회
- ▶▶▶ 상동구의 특색있는 가로수디자인
- ▶▶▶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마스터플랜 발표
- ▶▶▶ 환경조경지재 품질인증제 시행
- ▶▶▶ (재)환경조경발전재단, 감성나누기 프로젝트 시행
- ▶▶▶ 조경기술세미나 및 조경인 승진의 밤
- ▶▶▶ 제2회 고양시 조경인의 밤
- ▶▶▶ 제1회 조경감리원간담회
- ▶▶▶ 제12회 올해의 조경인 선정 및 시상식
- ▶▶▶ 제9회 자연환경대상 시상식
- ▶▶▶ (재)환경조경발전재단, 홈페이지 오픈
- ▶▶▶ 용산공원의 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 심포지엄

조경전문 포털사이트 www.lafent.com에 접속하시면 이 외에도 다양한 뉴스 및 행사, 관련정보를 상세히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를 기다립니다

2010년 3월 1일 발행될 조경정보 제6호의 주제는 '경관'입니다. 관련 정보나 의견이 있으신 분은 라펜트로 제보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기간 2010년 2월 5일까지
보내실 곳 lafent@lafent.com
문의 031-955-6042-4

발행인 | 조세환
편집위원장 | 이상석
편집위원 | 최신현
김도경 김태경 이우정 조경진 진양교
간사 | 임수정 백정희
2010년 1월 1일 발행 | 발행처 (사)한국조경학회

2009 Landscape Review Landscape Review 2010

- 2009년 조경정보지 (Landscape Review)는 다음과 같은 편집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이상석 교수 ·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김도경 교수 · 경희대학교 환경조경디자인학과
김태경 교수 · 강릉대학교 조경학과
이우정 교수 · 부산대학교 조경학과
조경진 교수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진양교 소장 · (주)CA조경기술사사무소
최신현 교수 · 영남대학교 조경학과
- 2010년 3월 발간될 제6호 (Landscape Review)부터 신임 편집위원님께서 추가로 위촉되었습니다. 많은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강호철 교수 · 진주산업대학교 조경학과
권진욱 교수 · 계원디자인예술대학 화훼디자인과
박문호 교수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연구원
이형숙 교수 · 경원대학교 조경학과
정옥주 교수 · 서울대학교 조경 · 지역시스템공학부
조동범 교수 · 전남대학교 조경학과
주신하 교수 · 서울여자대학교 원예조경학전공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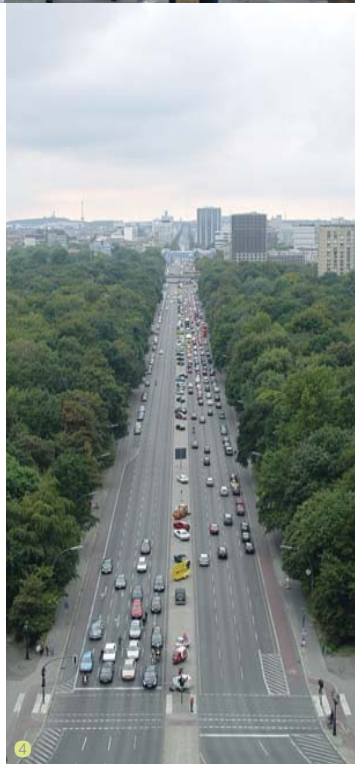
2



3



- 1 Curitiba, Brasil
- 2 Munchen mall, Munich, Germany
- 3 The Place mall, Beijing, China
- 4 Berlin, Germany
- 5 Toronto, Canada
- 6 Grand Project, Paris, France
- 7 Boat quay, Singapore
- 8 Hat Kobe, Kobe, Japan
- 9 River walk, San Antonio, U.S.A



4



5



6



7



8



9



(주)그룹 한 어소시에이츠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944-4번지
 그룹한빌딩 7, 8F, B1(우137-060)
 Tel. 02-521-1122
 Fax. 02-521-9858
 E-mail, grphan2@chol.com
 Homepage, www.grouphan.com



(사)한국조경학회 발간 정보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35-4 과학기술회관 신관 1007호
 TEL _ (02)565-2055 | FAX _ (02)565-2056 | e-mail_kila96@chol.com